

# “등하굣길 위험한 곳 이렇게 많았나요?”

### 광주 초등생들이 직접 만든 191곳 '아동안전지도' 보니

#### 6~8명 짝 지어 학교 인근 500m 상세히 조사 유해업소·방치된 폐가·어두운 골목길 등 표시

#### CCTV 미설치 등 위험 지적...범죄예방 자료 활용

“유해 업소가 많은데, CCTV도 없어 위험해요.”, “오랫동안 폐가가 방치됐고 쓰레기도 많아요.”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꼼꼼하게 돌아다니며 유해업소, 재개발지역 빈집, 어두운 골목길,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 위험한 지역을 표시한 안전지도 191개를 만들었다. 무려 191개 학교 주변을 실제 걸어다니면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위험 요인을 파악해 조사한 자료라 학교 폭력·아동 대상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1개 학교 주변을 내비게이션처럼 표시한 안전지도는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지난 2011년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위험환경 및 안전 요소 등을 조사해 제작했다. 북구에만 62개 안전지도가 제작돼 가장 많았고 광산구(49개), 서구(37개), 남구(28개), 동구(15개)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 제작된 이후 3년여가 흐르면서 바뀐 학교 주변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45개 학교의 안전지도를 업그레이드했다. 업그레이드된 45개 지도에 드러난 위험 지대만 무려 563곳에 달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치안시설·CCTV 등이 설치돼 비교적 안전한 지대로 꼽힌 구역은 52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구 위험 113개 지점·안전 91개 지점 ▲서구 119개 지점·129개 지점 ▲남구 61개 지점·91개 지점 ▲북구 223개 지점·175개 지점 ▲광산구 47개 지점·35개 지점 등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들은 6~8명이 1개 조를 이뤄 학교 인근 500m 구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사진을 찍고 현장 설명을 담은 메모까지 적어놓았다. 서구 화정초교 인근에 설치된

비상벨(2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모나 극락초교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고장난 가로등, “어두워서 납치당해도 모를 것 같다”는 경고문을 표시한 남구 주월중 인근 주택가 등 불안한 학교 주변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조봉초교 5학년 1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500m 떨어진 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오전 시간만이라도 횡단보도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불었다. 북성중 인근 주택가에는 “친구가 돈을 훔친 적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글을 붙여놓았다.

학교 인근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동구 남초교 인근 원지교 강가의 경우 난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거나 “북구 용두초교 인근 아파트 주변 풀숲이 우거져 키가 작은 아이들이 가만 보이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중흥초교 학생들은 학교 옆 미리내공원엔 “CCTV가 없는데 밤만 되면 형, 누나들이 담배를 피워 무섭다”고 적었다. 남구 진남초교 학생들은 “인근 노대재 호수공원은 CCTV 6대가 설치됐다”, 북구 삼각초교 월산공원 주변 산책로는 치안올레길로 지정돼 경찰이 순찰을 자주 다닌다는 안내도 덧붙여 놓았다.

191개의 안전지도들 들여다보면 주변 안전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소년 위생시설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역 뿐 아니라 안전사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 등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포함됐다.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오희경씨는 “학생들이 위험 요소를 인식한 학교 주변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아동안전지도란 초등생들이 학교 주변 500m를 직접 돌아다니며 파악한 안전 지대와 위험 지점을 표시한 지도로,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된다.

광주 45개 초등학교 주변은  
**위험한 공간 563곳**  
**안전한 공간 521곳**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위험지역**

- “고장난 가로등에 어두워 납치당해도 모를 것 같다”
- “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친구가 돈을 훔친 적 있으니 조심하라”
- “CCTV 없는데 밤이 되면 형·누나들이 담배를 피워 무섭다”



## 초등생 10명 중 6명 “반장 되고 싶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반장·전교 학생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가정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은 초등학생 2만3117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에 해당하는 1만4137명이 ‘반장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반장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여학생은 61%, 남학생은 5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반장이나 학생회 활동에 조금 더 적극

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가 좋아진다’와 ‘어려운 친구를 도울 수 있다’가 각각 24%,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가 13%, ‘주목받고 싶다’가 4%, ‘멋있어 보인다’와 ‘부모님이 원한다’가 각각 2% 순으로 나타났다. 반장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초등학생

은 39%(8천980명)였는데 ‘남들 앞에 나서기 부끄럽다’(31%), ‘책임질 일이 많아 귀찮다’(21%), ‘학교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다’(20%), ‘의견 중재가 힘들다’(11%),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8%), ‘교우관계 유지가 힘들다’(5%),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4%)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반장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묻자 ‘경쟁’이라는 답이 42%로 가장 많이 나왔다. /연합뉴스

## 광주서 또 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

### 경찰, 명예훼손·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9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300여장이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일대 뿌려졌다.

경찰은 유인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경찰서 사례 등을 감안, 전단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와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살포)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오전 7시께 풍암저수지 산책로에 뿌려진 A4 크기의 박 대통령 비방 유인물은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는 제목 아래 박 대통령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전단 수거하고 인근 CCTV를 확인해 유포자를 찾고 있으며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인데다,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지난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

설공주 옷을 입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부착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일단, 표현의 자유보다 ‘비방 유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를 비롯,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배포), 명예훼손(형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저수지 인근 CCTV로 이날 자정께 전단을 살포하는 용의자 사진을 확보하고 당시 주차된 차량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13일 광주공원에서 발견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 20여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MT 가혹행위 안돼” 교육부 전국대학에 공문

“선배들에게는 즐거운 하루가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교외로 떠나는 엠티(MT)는 신입생과 선배가 어울려 낭만을 만드는 자리다. 신입생 대부분이 선행과 기대로 엠티를 즐기지만, 일부 학생은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을 안게 된다.

올해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입학한 A씨도 이달 중순 예정된 엠티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엠티에서 일부 선배가 같은 방 후배들에게 춤을 비롯한 ‘재롱’과 음주를 무리하게 강요하고 심지어 기합까지 준다는 얘기를 여겨져서 들었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학교, 학과의 ‘전통’으로 포장하는 이런 악습은 신입생에게는 억지로 견뎌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 매년 봄이면 대학 엠티의 강압적 분위기와 각종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지만 음

주 강요와 기합, 구타 등의 폐단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엠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안전한 엠티가 실시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대학의 학과별 엠티 등 외부행사가 진행될 때 학생의 자율적 참석을 안내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5일 전국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문은 작년 2월 대학생 10명을 앓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대학 안전대책을 강화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처럼 각 대학이 노력하면 엠티 문화가 보다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마우나리조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각 대학에 배포했다. /연합뉴스

## 술집서 다이아 반지 훔친 군인, SNS 공개수사로 탈피



○...술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든 여성 코트를 훔쳐 달아난 현역 군인이 경찰서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4) 상병은 지난달 24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모 주점에서 감모(여·26)씨가 벗어 둔 코트와 그 안에 든 다이아몬드 반지 등 230만원 상당의 물

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

○...절도 등 전과 3범인 이상병은 훔친 반지 등을 집에 두고서 부대로 복귀했다. 경찰은 이 상병의 인상착의가 담긴 CCTV화면을 페이스북 등 사물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 시민 제보를 통해 검거한 뒤 헌병대로 인계.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12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 ④ 전대정문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 ⑥ 성춘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 ① 나주시 상명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200만, 매매가 2억8천
-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별리부지) 도로2차선원 비닷가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 ④ 수원지구 모이명1)1)1)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10-6670-9800

###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일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로상담해드림')

근린사실/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 ①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자가 5천9백 (대형산입단지 예정)
- ② 북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68㎡) 감평가 10억9천, 최자가 4억9천 (투자적합)
- ③ 광주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 (매장, 공업사, 특수)
- ④ 북구 매곡동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 ⑤ 동구 충장동 (토 155.4㎡,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자가 5억9천 (문화의전당)
- ⑥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68㎡) 감평가 10억9천, 최자가 4억9천 (투자적합)

근린 상가

-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 ② 순천시 정전동 (토 423㎡,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5억7천
- ③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 ④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 최자가 3억6천
- ⑤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
- ⑥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4천

주유소

- ① 남구 안촌동 (토 1,335㎡, 건물 135㎡)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9천
- ② 광산구 북룡동 (토 1,983㎡, 건물 517㎡) 감평가 8억9천, 최자가 8억9천

토지

- ①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8백, 최자가 9천4백
- ② 광산구 선명동 (토 834㎡) 감평가 1억4천, 최자가 6천3백
- ③ 광산구 신촌동 (토 1,873㎡) 감평가 3억5천, 최자가 2억4천

010-6670-9800 / 062)382-5500

### 경매학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 경매학원

↓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 ①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 7시30분~9시)
- ② 목요일 오후7시30분~오후9시

경매 컨설팅 해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